

열왕기상 18:41-46

「들어가면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순모임을 통해 기도를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과]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라.
- [2과]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
- [3과] 무한하면서도 인격적인 하나님
- [4과] 하나님이 엮으시는 이야기
- [5과] 자녀는 기도로 자란다.
- [6과] 주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 [7과] 쓰여지는 복음의 이야기
- [8과] 기도, 복음의 결정체
- [9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하나요?

이처럼 다양한 주제로 기도를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모든 순교재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다시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의 최고봉: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기」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정직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소망, 긴급한 문제, 절박한 상황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과 삶의 필요, 나의 정서적 문제까지도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는 바로 친밀함 가운데 누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높고 아름다운 기도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 속으로」

열왕기상 18:41-46을 읽어봅시다.

• 간절히, 끝까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지속되었던 극심한 가뭄 중에 비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TIP

당시 북이스라엘은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고대 문서에 따르면, 바알은 폭풍우의 신이자 풍요로움의 신입니다. 즉,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바알이 비를 준다는 신앙 아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음란하게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 누가 비를 주관하는 참된 신인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1.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왕상 18:42)

[묵상] 나는 엘리야의 기도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는가? 잠시 생각해 봅시다.

2.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왕상 18:43)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일곱 번까지 가라는 말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기도 가 아니었습니다. 금식하며 마치 투쟁하듯 나의 뜻을 하나님께 청원하며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 살려달라’고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삼년에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열왕기상 18:1)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가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말씀 하셨습니다.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엘리야의 기도는 자신의 바람과 소망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 뜻을 받은 자의 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 때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일곱 번까지 올라가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 적용해 보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뜻이 있으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있으시며, 자녀들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아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생각해봅시다.

혹시 내 안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성읍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지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후에, 짐을 싸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씩씩거리며 40일을 기다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행하시는지 지켜보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뜻을 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 기도의 최고봉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 36:36b-37a)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10)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나의 일터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길
나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높으신 계획이 이루어지길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질문」

1.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나의 태도는 요나와 같았습니까? 엘리야와 같았습니까? 순교재 중 가장 와닿았던 내용과 다짐을 함께 나눠봅시다.
2. 2024년에 가장 큰 기도 응답이 있다면 한 가지만 나누어 봅시다.
3. 순원들의 연말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